

##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 이주와 정체성 신혜란

일시: 2025년 4월 21일 7:30-9:30pm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란 무엇인가? 이주가 지역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구성하고, 또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누구를 '우리'로 포함하고 배제할지를 결정하며, 이주라는 현상은 그 '우리'의 경계를 흔든다. 이로 인해 이주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 지역은 이처럼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과도 관련된다.

#### 주요 논의 내용

- 관계와 소속감이라는 지역의 본질
- 이주민에 대한 논의와 정체성
- 다양성의 장소 만들기라는 지역의 역할

### ‘지역’의 본질은 관계와 소속감

역사적으로도 지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고대에는 지역이 주로 자연적 경계, 즉 산맥이나 강과 같은 지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지역이 행정구역이나 경제적 생산 단위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역이 산업 중심지로 구분되었고, 자본주의는 이러한 지역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현대에는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지역의 경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지역은 더 이상 국지적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체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역은 공간적으로 확장 가능하면서도, 특정한 문화적·정치적 의미를 내포한다. 지역은 물리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개인의 경험과 집단의 기억이 결합된 존재이다. 장소가 주로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반면, 지역은 집단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지역은 특정 공동체의 기억, 전통, 가치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며, 이는 장소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사회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은 인간 활동과 정체성이 교차하는 사회적 맥락이다. 지역은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우리 지역', '지역성', '지역사회'와 같은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지역은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의 공간적 표현이기도 하다. 지역은 단지 지리적 범주가 아니라, 권력관계와 사회적 배제가 스며든 공간이기도 하며, 도시와 농촌, 부유한 지역과 빈곤 지역처럼 상반되는 공간들 사이에서 관계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정체성은 정치화되기도 한다.

### 소수의 이주민이 왜 중요한가?

이주민은 한국 전체 인구 5%가 되지 않는데 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일까? 이주민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이동의 문제를 넘어, 영토성과 인구 소멸 문제, 그리고 이주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정체성 정치의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게 된다. 즉, 누가 '우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유발하며, 그 '우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변동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새로운 상상력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개념은 유연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지역은 관계적 개념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형성된다. 특히 이주는 지역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체성의 다중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포용적인 지역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주와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포용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이동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통치(governmentality)와 연결되어 있다. 이동은 위험하고 배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는 쿨한 일로 여겨졌다.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주로 우려하는 것은 이주민이 잘 적응하여 수용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한국으로 시집왔으니 한국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 문화적 수용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이주민 통합 정책의 역사와도 연결된다.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은 1920년대부터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이주자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론은 '이주자들이 결국 동화할 것이며, 동화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등장한 초국적주의

(Transnationalism)는 이 동화이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초국적주의는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다 (I am here and there)'는 식의 초국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본다.

이주민들이 본국과 도착국 모두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동화와 초국적주의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고, 복합적이고 진화하는 방식으로 얽혀 있다. 최근에는 '동화'라는 용어 대신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개념이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주민은 누구와 친해질까? 많은 경우, 이주민들은 선주민에게 동화되기를 기대하거나 의식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주민들과 더 활발히 교류하며 그들 사이에서 정서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공통된 경험'은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이주민들은 비슷한 문제—예컨대 외로움, 제도적 불안정, 차별의 가능성, 언어와 문화의 장벽—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지망이 되어준다. 이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단지 생존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

##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

정체성은 단일하고 안정된 실체가 아니다.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구성물이다. 개인의 정체성도, 집단의 정체성도 고정된 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시간과 공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지역의 형성도 마찬가지이다. 영토적 형성뿐 아니라 지역의 이름, 문장, 노래, 문화적 특징과 같은 상징들을 창출하는 상징적 형성, 제도적 형성, 사회적 인식을 통해 지역은 형성된다. 그 과정과 결과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역사와 이동성 또한 지역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역'이 중요해진 것도 정체성과 관계 있다. 첫째는 정체성의 강화이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역의 역사, 문화, 언어, 관습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둘째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지역 간, 국경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셋째는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지역(로컬)의 중요성이 역설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전통, 관습, 경제 활동은 글로벌 균질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방과 지역은 중심과의 관계, 범위의 넓이, 사용 맥락, 감정적 반응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중심과의 관계에서 지방은 주로 중앙(수도)에 대비되는 주변부를 의미하는 반면, 지역은 특정한 공간적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범위의 넓이 측면에서 보면, 지방은 위계적이며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암시하는 좁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지역은 중첩적이고 포괄적이며 정체성을 강조하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사용 맥락에서도 지방은 '수도권 대 지방'처럼 정치적, 행정적 구분에 주로 사용되지만, 지역은 '지역 경제'나 '지역 협력'처럼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맥락에서 자주 등장한다. 지방은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주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지역은 정체성,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다양성의 장소 만들기’에서 지역의 역할

지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역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천과 의미 부여, 그리고 장소와 장소성의 중첩을 통해 재구성되는 공간적 산물이다. 따라서 지역은 언제나 공존과 변화를 통해 재구성된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고유성과 다양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경계가 새롭게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 만들기'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도시 공간 안에는 이미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질적인 주민들이 협력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포용적 지역 만들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과 장소 만들기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과 거버넌스를 다층적 규모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가 지역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특정 지역이 장소 만들기의 주체가 되기도 하며 그 안에서 정체성의 붕괴와 재구성이 반복된다.

다양성과 권리를 중심에 둔 장소 만들기과 지역 만들기는 공존, 연대, 차이,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함께 상상하는 과정이며, 오늘날 도시와 지역 연구, 정책 실천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은 끊임없이 변화, 재구성되는 관계적 구성물이다.

---

###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도시계획학과 박사(Uni. of Southern California).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8년 재직 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있다. 심층인터뷰, 참여관찰 연구방법으로 정치지리, 도시정치, 이주 주제를 연구한다. 대표적 저서로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 『The Cultural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in South Korea』가 있다.